



 <a href="http://csf.kiep.go.kr/">http://csf.kiep.go.kr/</a>	「이슈&트렌드」
2018. 08. 31.	<b>중국 A주,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b> 작성   조고운 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18년 8월 15일 《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证券登记结算管理办法)》과 《상장사스톡옵션관리방법(上市公司股权激励管理办法)》을 개정하고, 9월 15일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함.
- 《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证券登记结算管理办法)》의 개정으로 중국국민, 중국법인, 중국합명기업<sup>1)</sup>에게만 허용되었던 A주 증권계좌 개설 권한이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에게도 허용되어 A주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이 확대됨.
    - (개정 이전) 외국인이 중국 A주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은 △ 중국 영주권 보유자 또는 △ 중국에 외국인투자지분유한회사를 설립하고 A주에 상장한 경우 또는 △A주 상장사의 외국인 직원으로서 중국에서 근무하고 자사의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였음.<sup>2)</sup>
    - (개정 이후) 위 조건 이외에도 △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중에서 출신국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중국 증감회와 감독관리 협약을 맺은 경우<sup>3)</sup> 또는 △국내 상장사의 해외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에도 중국 A주 투자가 가능해짐.
  - 또한 《상장사스톡옵션관리방법(上市公司股权激励管理办法)》의 개정에 따라 상장사의 스톡옵션 대상이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에서 ‘모든 외국인 직원’으로 범위가 확대됨.
  - 위 개정내용을 순조롭게 시행하기 위하여 중국 증권등기결산유한공사<sup>4)</sup>는 외국인의 A주 계좌 개설 방법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sup>5)</sup>을 제정하였고, 증감회는 조세, 외환관리 등 방면에서 세부 조치를 마련할 예정임.[표 1 참조]
  - 중국은 그동안 인도가 상당 부문 차지하였던 수력발전에 대한 투자 협력을 확대해가고자 함.
- 중국 증감회의 이번 조치는 △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촉진 △ A주 시장의 투자자 구성 다양화를 통한 시장 변동성 감소 △ 자금유입 경로의 확대를 통한 A주 거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1) 합명기업(合伙企业)은 2인 이상 기업 또는 개인이 합명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하고, 모든 구성원이 공동 수익 분배·공동 책임을 지는 형태의 기업을 의미함.

2)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A주 계좌를 개설하고 자회사의 주식에만 투자가 가능하였음.

3) 중국 증감회는 총 62개 국가 및 지역과 68건의 양자 간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음. 62개 국가 및 지역에는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프랑스, 독일 등이 포함됨.

4) 중국 증권거래 시 등기, 예탁 및 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등기결산기관임. 주요 업무는 증권계좌 및 결산계좌의 개설 및 관리, 증권예탁 및 양도, 증권소지자의 명부 등기 및 지분 등기, 증권 및 자금의 청산, 결제 및 유관 관리 및 중국 증감회가 승인한 기타 업무 등임.

5)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국적 직원의 A주 증권계좌 개설에 관한 통지(关于符合条件的外籍人员开立A股证券账户有关事项的通知)》

- 중국 증감회는 이번 개정 조치가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인재강국 전략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인재강국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인재들이 중국 A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중국 경제에 더욱 기여하도록 함.
  - 또한 중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거래가 7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바, 기관 및 외국인 등 투자자 구성을 다양화하여 시장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개인투자자는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는 것을 중시하므로 투자기간이 매우 짧아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에 의해 특정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쏠림현상이 심화되기도 함.
  -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비중을 높임으로써 주식투자의 변동성과 쏠림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중국 주식시장은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18년 들어 현재까지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는 바, A주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능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식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함.
- [그림 1 참조]

- 이번 개정 조치는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방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며, 자격을 갖춘 해외 개인투자자가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중국 A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QFII, RQFII를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의 중국 A주 투자가 허용되었고, 후강통과 선강통을 통해 해외 개인투자자의 중국 A주 투자가 가능해졌다(단, 이 경우 투자종목, 투자한도, 거래일 등에 제한이 존재), 이번 조치로 해외 개인투자자의 중국 A주 투자 제한이 더욱 완화된 것으로 평가
- [표 2 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한국 간 주식시장 동조성이 커지고 있고<sup>6)</sup> 최근 미중통상분쟁의 여파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또한 하락세를 겪었던 바, 이번 조치를 포함한 중국 증시 부양 조치의 효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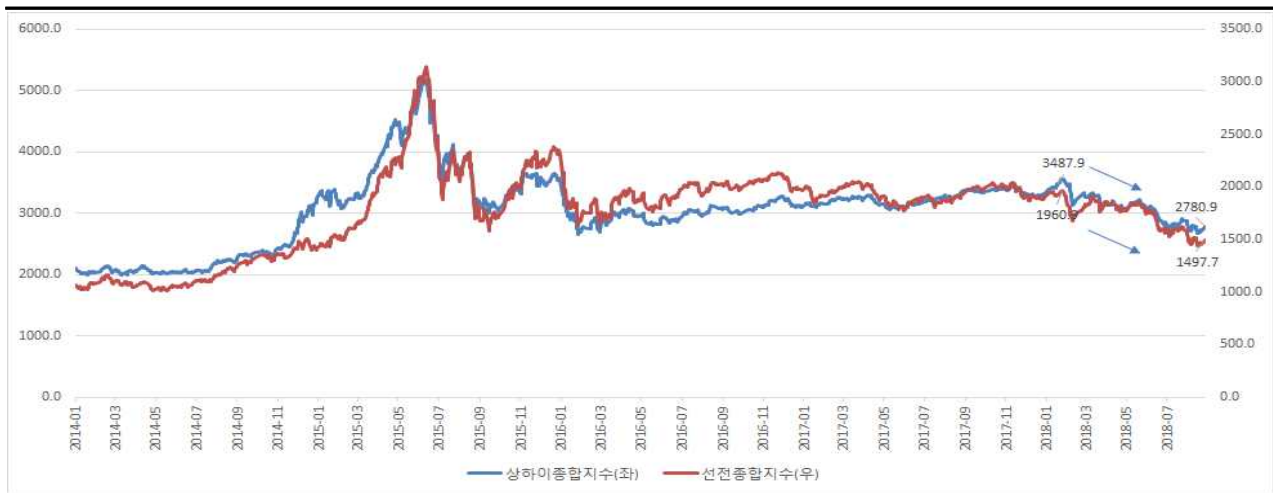
표 1. 중국 주식시장 구성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A주 (중국인 전용)	B주 (외국인 전용)	A주 (중국인 전용)	B주 (외국인 전용)
거래화폐	위안화	미 달러	위안화	홍콩 달러
상장종목 수	1,432	51	2,105	48
외국인 투자 가능여부	△ QFII, RQFII, 후강통 +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자	○	△ QFII, RQFII, 선강통 +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자	○

자료: 언론보도 및 CEIC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 유복근·이진수(2018), “한국과 주요 교역대상국 간 주식시장 동조성”. BOK경제연구 2018-2호.

그림 1. 최근 중국 주가지수 변화 추이



자료: CEIC

표 2. 중국 주식시장 구성

2002. 11	QFII 도입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한도 100억 USD
2011. 12	RQFII 도입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한도 200억 RMB
2012	QFII 및 RQFII 투자한도 상향	QFII 한도 800억 USD로 상향 조정 및 신청 자격조건 완화, RQFII 한도 700억 RMB로 상향 조정
2014. 11	후강통 개통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간의 교차 거래 시스템 개시
2016. 12	선강통 개통	중국 선전과 홍콩 증시간의 교차 거래 시스템 개시
2017. 6 (2018. 6부터 시행)	중국 A주 MSCI 신흥국시장(EM) 지수 편입	중국 A주 230개 종목의 시가총액 2.5%를 편입
2018. 5	후강통, 선강통 일일 투자한도 확대	각각 4배 확대(130억 위안 → 520억 위안)
2018. 6	해외기관투자(QFII, RQFII)에 대한 규제 완화7)	- QFII 투자차익 해외송금 한도(전년 기준 중국 내 투자자산의 20%로 제한) 폐지 - QFII 및 RQFII 투자원금 3개월 보호예수(해외반출 금지) 조치 폐지
2018. 8	중국 A주 MSCI 신흥국시장(EM) 지수 추가 편입	중국 A주 230개 종목의 시가총액 2.5%를 추가 편입
2018. 9	중국 A주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A주 상장사의 해외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외국인직원에게 A주 증권계좌 개설 허용

자료: 언론보도, 중국 정책문건 등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7) 《关于修改〈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

## 참고자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증권일보, 신금융평론, 중국신문망 등